미지와 만난 그날 밤 이후, 난 변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내게 닥친 문제에서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우자고.

그래. 그렇게 마음먹긴 했지만.

…문제가 커도 너무 크잖아.

< 교무실 >

교무실에서 주절주절 설명하는 세계사 선생님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리 생각했다.

“이번에 전근 가는 선생님이 2학년 담당이잖냐. 너 학생회라며? 같은 2학년 애들 잘 알지?”

“선생님이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네가 애들 모아서 뭐 좀 해드려. 롤링 페이퍼 같은 거 있잖아, 알지?”

“제가요?”

“그래. 너 아니면 내가 하리? 원래 학생회가 이런 거 맡아서 하는 거야.”

“이번 주까지만 하면 되니까 시간도 넉넉하잖아. 끝내면 나한테 가져오고, 알겠지? 그럼 나가봐!”

[ 드르륵 // 복도로 이동 ]

“…….”

어떡하지.

이번 주 안에 2학년 애들을 모아서 롤링 페이퍼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친한 애라곤 1명도 없는데.

“하아….”

차라리 나 혼자서 글씨체 바꿔가면서 롤링 페이퍼 쓰는 방법이 현실적이겠다.

대충 ‘선생님 수업 재밌었어요.’ ‘헤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같은 것만 적으면 안 들킬 것 같기도 한데.

아냐. 그랬다가 혹시라도 걸리면 난리 나겠지. 나 말고 다른 학생회 사람들도 욕 먹을 것 같고….

그냥 교무실로 돌아가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선생님께 얘기하자.

나 말고 친구 많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야.

나왔던 교무실로 다시 들어가려고 문에 손을 뻗었을 때.

( 드르륵 // 문이 열리는 소리)

먼저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났다.

“안녕? 누군가 했더니 후배 너였구나.”

검은 단발에 동그란 안경. 교무실에서 나온 건 글월고 학생회장인 은혜 선배였다.

“아, 안녕하세요.”

“교무실 앞에 누가 계속 서 있길래, 난 또 문을 못 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교무실엔 무슨 일이야?”

“그, 세계사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요.”

“음…. 혹시 그 선생님이 시킨 일 때문이야?”

어, 어떻게 알았지?

당황해서 쳐다보자, 은혜 선배는 멋쩍게 시선을 피했다.

“미안해. 일부러는 아닌데 아까 나도 교무실에 있을 때 들었어.”

“아, 네…. 사실 그것 때문이긴 해요. 제가 하기엔 힘들 것 같다고 가서 말씀드리려고요.”

“그랬구나. 그런데 아마 선생님은 후배 말을 안 들어주실 거야.”

“세계사 선생님은 그…. 조금 그러시거든.”

“성격이 안 좋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뭐라고 말해야 하지?”

“재수가 없어요?”

“아니야! 안 좋은 뜻이 아니라, 그게. 그….”

“…심지가 굳으시거든.”

은혜 선배는 고심 끝에 성격 안 좋고 재수 없는 세계사 선생을 최대한 돌려 말했다.

“그래서 후배가 가서 말해도, 선생님이 봐주진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진짜 필체를 바꿔서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후배가 힘들면 내가 할까?”

“네?”

“세계사 선생님도 학생회 일이라고 하셨잖아. 내가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진 않을 거야.”

“후배가 학생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미지 때문에 심란할 텐데. 이번 일은 내가 맡을게.”

“아, 아니에요. 은혜 선배도 바쁘시잖아요.”

“바쁘긴. 3학년은 수험도 끝났고, 수업도 거의 다 해서 느긋해. 그리고 학생회장이라 이런 일은 많이 해봐서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은혜 선배는 내 고민을 간단하게 해결하곤 교무실 앞을 떠나갔다.

…이걸로 된 건가?

생각해보면 은혜 선배가 나보다 이런 일을 더 잘할 테고.

괜히 내가 맡아서 엉망으로 만드는 것보단 은혜 선배가 하는 게 나을 거다.

그래, 그러니까 은혜 선배한테 맡기면 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은혜 선배가 대신 떠맡으면, 결국 도망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

고작 며칠 전에 바뀌기로 결심해놓고는 겨우 이런 일에 포기하긴 너무 이르다.

점점 멀어져가는 은혜 선배의 뒤를 쫓았다.

“저, 저기. 은혜 선배.”

“어? 왜 그래? 뭐 깜빡했어?”

“방금 선배한테 맡긴 일 말인데요…. 그냥 제가 해볼게요. 원래 제가 할 일이잖아요.”

“…후후.”

은혜 선배는 작게 웃고는 내 머리로 손을 뻗었다.

“후배는 책임감이 있구나?”

살짝 차가운 선배의 손가락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길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쓰다듬어지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게 이상하다는 걸 깨달을 즘에, 은혜 선배가 손을 거뒀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하고 후배가 함께 맡아서 하는 걸로.”

“혼자 하기에 어려우면, 같이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아, 네….”

“응! 우리 잘해보자!”

은혜 선배는 상냥하게 손을 흔들며 떠났다.

“…….”

머리를 쓰다듬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서일까.

어쩐지 부끄러운 기분이었다.